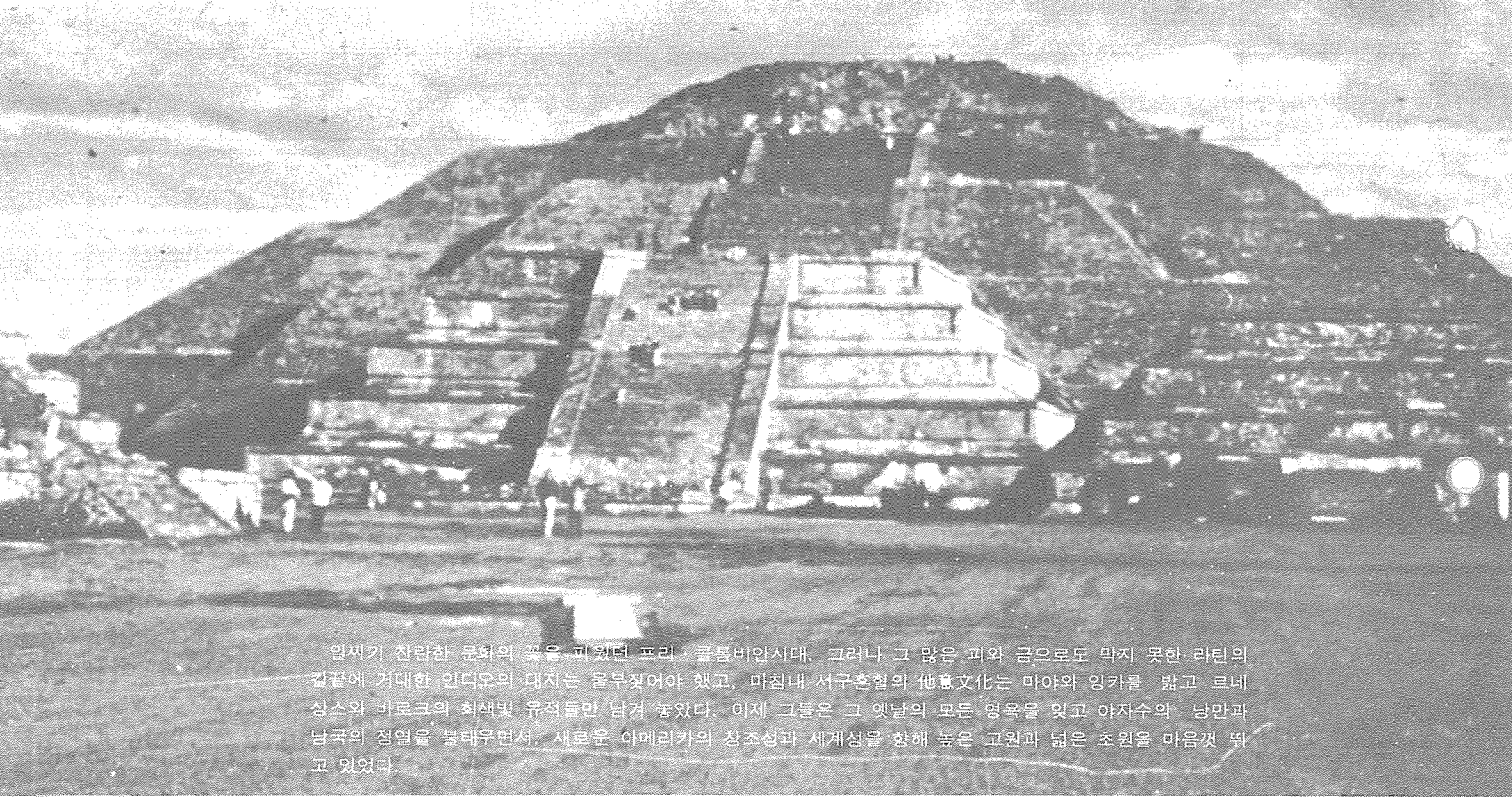


라틴 아메리카의 풍물과 건축 (I)

金榮洙 — 建築士 · 김영수건축연구소



인적이 잔란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프리 콜롬비아시대. 그러나 그 많은 피와 금으로도 막지 못한 라틴의 길가에 거대한 인디우의 대지는 울무짓어야 했고, 마침내 서구축점의 他文化는 마야와 잉카를 낳고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최색 및 유적들만 남겨 놓았다. 이제 그들은 그 옛날의 모든 영광을 잊고 아자수의 낭만과 남국의 정열을 불러우면서, 새로운 아메리카의 창조성과 세계성을 향해 높은 고원과 넓은 초원을 마음껏 뛰고 있었다.

테오티우아칸의 「해의피라미트」

□ 마야와 라틴의 가교 ‘멕시코’

하와이와 LA를 거쳐 멕시코시티에 도착한 것은 한창 더운 오후였다.

퀴퀴한 냄새가 콧속으로 들어온다. 테라코타와 多色の 화초석 바닥인 공항에서 부터 야수파적인 색채감을 강하게 느낀다. 공항을 빠져 나와 호텔로 가는 거리는 미국의 뒷골목같은 저저분한 인상이다. 허물어 진채 남아 있는 폐허와 때묻은 흰벽 그리고 선이 일그러진 붉은 지붕들이 많은 것을 보고는 예전에 본 멕시코의 영화장면들이 떠오른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앞차에 다가와서는 불을 먹어 보이는 청년, 그는 불꽃을 입속에 삼켰다가 다시 뱉아 내는 동작을 몇번 하더니 동전을 받아 들고는 물러 갔다. 묘기를 파는 별난 구걸이 재미있다. 조금 더 가니 10여층의 아파트들이 높은 나무숲들 위로 상체를 보이면서 밀집되어 있었다. 회소성 때문인지 중상류층들이 추로 산다고 했다. 도심에 가까운 고급아파트의 선호도는 어디

를 가나 인기가 대단하다. 정말 피할 수 없는 국제병이 아닌가 느껴진다. 볼리바의 동상을 지나 구시가지인 주아레스의 델 프라도호텔에 도착하기까지의 7km를 스케치해본 것이다.

□ 지진과 빈곤에 시달리는

뉴·스페인의 도시와 건축

호텔 오른쪽 두 블록쯤엔 44층의 라틴아메리카 타워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30년도 더 지난 건물이라 그런지 어프로치나 메인홀이 너무나 빈약했고 외관과 그 관리상태도 다소 소홀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국제주의양식의 미국풍 마천루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세대 전의 우리보다는 역시 한발 앞서 가는지나 하는 느낌도 가져본다.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바로 이앞에 있다. 건국 1백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30여년에 걸쳐 완성(1910년)한 건물이다. 이태리의 건축가 「아다모 모리아」가 설계한 백색 대리석에

중앙원형돔이 있는 화려하고도 미려함이 돋보이는 건물이다.

지금은 미술관으로도 쓰고 있는 이곳 내부의 벽화들은 「리베라」 「오로스코」 등 유명화가들이 그린 그림이라고 자랑이 대단하다. 그러나 2년전 지진에 의해 건물의 수평·수직선이 상처를 입고 조금은 일그러져 있는 것이 아쉬웠다. 거대한 호수가 있었던 자리에 멕시코시티가 들어서서 그런지 로 깔로 광장에 가보아도 마찬가지였다. 아즈텍제국 이래로 수도의 가장 중심인 이곳 광장주위는 대사원과 국립궁, 대법원과 시청사 등 모두가 지진의 피해를 입고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사원의 외부에 보이는 몇군데의 크랙과 일부 내려 앉은 부분, 또 내부에서는 바닥에 금이가고 굴곡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때 「울트라 바로크」의 대표적 건축물로 꼽히는 이 사원이야 말로 허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말했더니 정부에서도 연구에 부심하고 있다고 들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성

당일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가장 큰 이 사원이 세워진 것은 1750년이다. 스페인의 바로크가 절정에 달하면서 내외부의 장식은 극치에 이른 느낌이다. 외부의 조각에 도취된 나는 왕의 채플 내부와 제단을 보고는 정신이 멍해 옴을 느꼈다. 오벨리스크를 거꾸로 세운듯한 에스티피테 기둥들과 호화스러운 제단이며, 그뒤의 병풍장식들이 조각과 도금으로 이루는 수려함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것 같은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건축이란 부분을 찾을 수 없는 환상적인 황금의 동굴과도 같이 눈부시고 찬란한 것이었다.

장식의 아름다움에 취한 채 왼쪽에 있는 궁(宮)으로 갔다. 여기는 원래 목테주마궁이 있던 자리라고 한다.

스페인 정복 후 '코르테스'가 세웠으나 1692년에 폭도들에 의해 거의 파괴된 것을 다시 세웠다고 한다. 공화국 수립 때까지는 왕들이, 그후로는 대통령관저였고 지금까지 매년 9월15일 밤 11시에 대통령이 직접 독립의 종(鐘)을 울리고 있다고 들었다. 중앙 정문으로 해서 궁안으로 들어가면 왼쪽 계단식 벽에 '리베라'가 그린 거대한 역사화가 있고 회랑복도를 따라 역사는 계속 이어졌다.

사실 멕시코의 벽화는 예술의 차원을 넘어 생활화하고 실용화되어 어느 곳을 가든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학도시의 도서관 건물은 온통 다채로운 모자이크로 마야와 아즈텍의 전통을 벽화 속에 표현하고 있었고, 내가 묵었던 호텔까지도 로비벽과 코아벽을 역사로 바꾸어 놓고 자량이 끊어지지 않았다.

내가 보기엔 이들의 뮤어털癖은 고대의 피라미트에서부터 뉴스페인의 울트라바로크에 이르기까지 멕시코예술의 특질로 生動하였고, 드디어는 장식의 絶頂感이 오늘날의 벽화로까지 表出되지 않을 수 없는 극한적인 감정의 샘(泉)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다.

□ 우리와 너무 흡사한 담장과 대문

멕시코시티(해발2,240m)는 복잡하고 다양하면서도 크게는 兩面性을 가진 도시인 것 같다. 아즈텍제국의 자리에 스페인이 다시 세운 구시가지와,

근대에 와서 새로이 크게 발전한 신시가지가 그것이다. 스페인의 식민지로 퇴색된 광장과 거리는 남루한 차림을 한 서민의 집합지였고, 상제리제를 닮으려던 신시가지는 경제적인 현대건축과 하이 소사이어티의 물결이 넘치는 듯 했다. 아라메다(1592년 조성)공원과 차플테펙(257만평)공원이 바로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어느 곳이건 간에 공원은 젊은 아베코족들의 짙은 애수 속에 해가 지고 달이 기우는 곳이지만, 아라메다공원의 벤치에는 인디오가족이 시간을 잃어 버린 듯 지쳐있는 모습과 가족행상이 많이 보였고, 거지꼴의 공원밖 노점상들은 행인을 따라 눈알을 굴리거나 호객에 여념이 없었다. 마치 빈곤이 그네들 인디어나 가난한 메스티조의 영원한 숙명처럼 보이기도 했다. 반면 차플테펙은 동식물원과 어린이 공원과 호수 등 뉴욕의 센트랄 파크에 비교될 정도로 시설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백년도 넘은 아름답리 나무 밑 잔디밭에서는 가족들의 피크닉이 이채로웠고, 경내의 메뚜기언덕 위 캐슬은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의 공원야대에는 우리 한국정 코어가 자리잡고 있었다. 주위는 모두 고급주택가로 메워졌으며 전통적인 스페인풍의 주택들이 대부분이고 가끔 유니크한 현대풍의 주택들도 눈에 띄었다. 꽃들과 정원수로 잘 다듬어진 뜰을 높은 담장과 대문으로 막아 버린 것은 우리와 너무나도 같아 보여 입맛이 씹쓸하기도 했다.

사실 멕시코에는 백인이 10%, 인디아가 30% 그리고 이들의 혼혈인 메스티조가 60% 가까이 된다. 인디오와 백인의 빈부의 차를 이들은 하늘과 땅에 비유하기도 한다. 교육 또한 그랬고 생활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 멕시코가 선진국을 향한 진군을 계속하는데 결정적인 암적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양극의 계층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 신전도시 '테오티우아칸'
거대한 피라미트의 파노라마

아침 일찍 멕시코시티를 떠나 1시간반이나 걸려 테오티우아칸에 도착하였다. 시동북방으로 50km나 떨어져 있는 중부고원의 분지라고 안내인은



멕시코 사진

설명했다. 많은 버스들과 승용차들이 이미 주차장을 메우다시피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관광객이 꽤나 많이 온 것 같기도 하다. 멕시코의 전형적 토산품과 민속춤들의 가게에선 들어와 보라고 손짓하기에 열심이다. 좌우 가게를 따라 이곳 박물관의 넓지 않은 홀을 나가면 페허의 언덕이 저멀리 피라미트와 함께 시야에 들어온다. 3~4년 전부터 관광지로 본격 개발되고 있다는 이곳은 아직도 제대로 자라지 못한 잔디를 위해 백리밖의 강물을 끌어 스프링클러를 돌리고 있었다. 4세기부터 9세기까지 여러 시대동안 종교적 중심으로 번성하였을 때는 저렇게 애를 먹고 키우는 저런 잔디밭은 아니었을 것이다. 시대를 따라 피라미트를 보는 눈도 또 사용하는 사람도 달라지는 걸 보면 멋적은 웃음이 절로 난다. 스프링클러의 물줄기를 피해 퀘찰코 아틀의 피라미트 쪽으로 갔다. 이 피라미트는 테오티우아칸의 가장 남쪽에 있는 가장 오래된 초기 양식이라고 한다. 동쪽 석실 앞에는 비의 신 트라룩과 함께 깃털을 가진 커다란 뱀의 머리가 아주 공격적으로 놓여 있다. 이것이 봄의 신으로 보이는 퀘찰코아 틀이다. 흑요석의 눈을 가지고 색깔한 흔적을 보이면서 수없이 나타나는 걸 보면 비를 구하고 풍년을 비는 의식들이 행하여 지지 않았다 여겨진다.

다시 차를 타고 서쪽 외곽도로를 따라 달의 피라미트로 갔다. 이 피라미트는 42m 높기로 북쪽끝에 자리잡고 있으며 오르기가 힘들 정도로 가파른 계단을 딛고 정상에 서면 테오티우아칸(16km²)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었다. 남북을 축으로 뻗어 있는 死者의 길'(THE AVENUE OF THE DEAD·폭60m)을 중심으로 왼쪽 가운데쯤 壯大한 모습의 해의 피라미트

이 우뚝하다. 바닥의 길이 약 210m, 높이 63m나 되는, 물론 아메리카대륙에서는 가장 큰 피라미트이다.

그 옛날 태양신에게 살아 있는 염통을 뽑아 제사를 지냈다는 이 “신들의 都城”과 “死者의 길”을 머리 속에 그려본다. 눈을 감는 순간 마음이 숙연해지고 적막해움을 느낀다. 다시 눈을 뜨면 펼쳐지는 파노라마, 그것은 장엄한 피라미트와 폐허의 건물들이 잘 어울려진 배치의 완벽성과 정연한 기념성을 읽게 해 주었고, 그넘어 펼쳐지는 市界쪽의 고원사막은 특유의 풍경을 그림처럼 흠어 놓았다. 우리네 화분에서나 볼 수 있는 조그만 선인장들이 키 큰 나무들처럼 자라고 있는 곳이다. 테오티우아칸의 피라미트들은 지금도 발굴과 복원공사가 고고학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에집트의 피라미트과는 달리 무덤이 아닌 종교적 제단이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았다.

□ 경쾌하고 기능이 조화된 종교건축

라틴의 여러나라처럼 멕시코도 90% 이상의 국민이 가톨릭이다. 정복군이 들어올 때는 항상 신부가 따랐다.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강조되었고 가톨릭은 새로운 생활방법의 정신적 근간이 되었다. 1523년에 「프란시스코」가 1526년에 「도미니」이 또 1533년에는 「아우구스틴」교회가 도착했다. 가톨릭에 수회는 훨씬 늦은 1572년이다. 토속신앙이 강한 인디오들에게 가톨릭신앙을 보급하기 위해서 넓은 마당을 가진 교회나 수도원을 짓고 스페인의 언어와 문화도 교육하였다. 멕시코시티의 「프란시스코」가 세운 트라테몰코의 대학은 멕시코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16세기에 지어진 종교적 건축물들은 대부분이 다 거대한 규모였고 르네상스와 함께 로마네스크와 고딕의 요소들을 결합한 절충주의 양식들이었다. 특히 트라테몰코의 “3문화광장”에는 고대 멕시코의 아즈텍 유적지가 있는 신전자리에 16세기에 스페인이 지은 산티아코 교회가 남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계단으로 오르는 장방형의 遺構 넘어에 있는 로페스 마테오의 고층빌딩들이 현대 멕시코 문화를 첨가하여 부르는 이름이 바로 “3문화광장”이었고 이 지역은 또 백

시코역사의 생생한 척도와도 같아 보였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아콜만교회는 멕시코시티에서 테오티우아칸으로 가는 길 10km쯤 못가서 있었다. 1539년 「아우구스틴」수사들에 의해 세워진 것인데 궁륭으로 된 내부의 애플스 는 고딕인 반면 장식기둥, 벽감의 彫像, 프리이즈와 라운들 그리고 이중 아치의 입구 등은 스페인 르네상스 건축양식의 표본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더우기 오른쪽에 있는 수도원의 회랑은 로마네스크를 회상케 하는 아치와 기둥들이 우아한 리듬으로 반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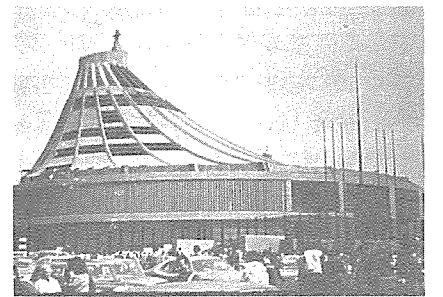
과달루페의 바질리카는 순례자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었다. 인디오 양치기 「잔디에고」의 기적에 따라 세워졌다고 한다. 전형적인 스페인 바로크가 눈에 완연하다. 중앙 돔의 좌우에 원형탑이 대칭을 이루고 입구의 중앙외벽은 벽감의 장식 등이 호화로우면서 질서와 조화가 정연했다. 교황이 방문했을 때 세운 백색의 기념동상이 분위기를 더하면서 오른쪽으로 비켜 섰고 그 오른쪽으로는 1976년에 지었다는 현대식 성당이 나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았다. 때마침 미사가 집전되고 있었고 앞마당에서 부터 끊어앉아 돌층계를 오르는 몇명의 참배자를 보고는 종교에 귀의하여 오로지 구원을 기도하는 무아의 참 인간을 보는듯 고개가 숙여졌다. 넓은 원통 위에 한쪽으로 길게 흘러내리는 원추형의 지붕을 가진 造形의 대담성과 높은 재단과 낮은 회중석으로 된 부채형의 내부를 天光까지 동원하여 연출한 空間의 웅장성 그리고 후면의 경쾌한 어프로치와 생동하는 기능의 조화술등을 볼 때 현대 멕시코의 종교 건축을 총 결산하는 作品으로 여겨졌다. 굳이 결점을 말한다면 다소 웅졸한 대지이용과 외벽설계의 평범성, 조금은 산만한 회중석의 진입방법과 원추형지붕의 침단을 자른 처리미숙이 나의 눈에 는 아쉽게 보였다.

□ 종교와 예술과 고적의 나라

정말 멕시코는 종교와 예술과 고적의 나라로서 수없이 많은 교회와 사원들은 신앙과 예술의 표본처럼 보

였고 수많은 피라미트와 폐허의 유적들은 깊은 역사와 교훈을 일깨워 주었으며 유럽풍의 가로변에 스페인 바로크와 멕시코의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건축들은 새로운 질서와 풍요로운 내일을 다짐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1968년에 올림픽을 치루고 지하철을 완공하면서 일찌기 현대화의 길을 걸었고, 지금은 은과 오팔 그리고 석유 생산에 이르기까지 강국을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꼭 다시 오게되면 못다본 그 무수한 고적지와 누스케인의 정수를 다시 찾아 보고 「아카폴코」에 가서 휴양도 즐겨보리라. 콜롬비아로 갈 캐비를 서둘렀다. 나무로 된 “아즈텍 켈던디”는 부숴질까봐 들고 가기로 마음 먹었다.



구아달루페의 새 성당

□ 엘도라도의 에머랄드 ·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의 관문인 엘도라도호 港에 착륙할 때, 주변 초원과 목장을 보고는 사바나의 평원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별로 크지도 않은 아담한 공항을 빠져 나오면 잘 자란 나무들과 상쾌한 햇빛이 멕시코에서의 인상과는 다소 대조적이다. 차를 기다리는 동안 짙은 진 군인들이 자주 지나갔다. 집들도 흰 벽보다는 적지만 적벽돌이 눈에 많이 띄었다.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3개의 녹지 분리대에 2차선의 4개 도로로 되어 있고 연도에는 요즈음 지은 말쑥한 공장들이 아주 많았다. 잘 자란 잔디는 손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로수 역시 빈약했다. 최근 5년 동안 경제의 급성장을 가져 왔다는 말이 실감났다.

공항을 출발한지 10분이나 되었을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겨울에야 비가 오는 이곳이지만 3월 말의 때늦은 비라면서 안내인 「페르난도」씨는 당황해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교량과도 같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을 따라 북쪽에서 내려오면 이 나라를 거치지 않고서는 남미대륙을 밟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는 마야와 아즈텍이, 남쪽에서는 차빈과 잉카가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웠었다.

물론 콜롬비아에도 잡다한 소문화의 흔적과 무이스카 문명 등의 수준을 보이긴 했지만 그 역사와 유적은 비교가 안되는 것이었다. 適合하는 장소는 결국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의 중매자밖에 안되는 곳이라고 생각해 본다. 사실 문화의 발전과 문명의 변천과정에서 매개의 역할도 높이 평가해야 할 중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콜롬비아에 대한 과소평가나 문화연구가 소홀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들은 테오티우아칸의 거대한 피라미트도, 마추피추와 같은 거창한 폐허도시도 자랑할 건 없지만 選金이나 그 세공기술, 장식에술품만은 프리 콜롬비아時代 제 1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금박물관(MUSEO DE ORO)에 가보면 깜짝 놀라 탄성을 지르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아마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귀걸이·코걸이·목걸이 등에 섞여 전시된 뽀뽀 뚝은 人骨의 풍장법이나 동굴묘는 그렇다 하더라도 열평 정도의 캄캄한 방에 50여명의 관람객을 모아 놓고 문을 닫아버린 뒤 초조하게 기다릴 즈음에 갑자기 조명이 비추는데, 사방 벽에 뽀뽀하게 진열된 황금 장식품들이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지면서 장내는 순간 고함과 경탄의 소리로 귀청이 멀어질 것 같이 된다. 대단한 금장식과 대단한 전시방법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금에 대한 유명한 전설인 엘도라도의 「황금 인디언」은 구아타비타 호수 속에서 아직도 찾지는 못했지만, 금과 전설에 대한 국민들의 애착과 집념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하기가 스페인의 「퀘사다」장군(GONZALO JIMENEZ QUESADA)이 정복을 시작한 2년 후(1538년) 보고타의 건설을 시작하고 식민지로 만든 것도 실은 금 때문에 시작된 것인만큼 금은 정치제도와 사회변혁의 근본적인 원인과 목표가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옛날

에도 금은 부족의 富를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용맹의 바로미터가 되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금을 몸에 걸칠려는 싸움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금뿐만 아니라 세계 제일의 에머랄드를 가진 민족이 된 것인지를 모르겠다.

시내의 상점들마다 에머랄드를 팔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실제 구경도가보았지만 오래된 주택가에는 가공공장이 많은 것으로 소문나 있다. 엘도라도의 전설에도 에머랄드 얘기가 나오지만 옛날 집착의 인디언들은 북쪽 멕시코의 테노취트란과 남쪽 페루의 쿠스코에까지 취보르 광산의 에머랄드를 교역하였다고 한다. 국영의 코스쿠에스 광산과 단 하나뿐인 개인소유의 취보 광산 등, 몇 군데에서 나오는 에머랄드가 세계의 9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련·남아연방·로메시아가 생산하고 있는데 콜롬비아 에머랄드는 신비스러운 녹색의 불(GREEN OF FIRE)라고 불리울만큼 색상과 순도가 뛰어나다고 한다. 금과 에머랄드, 이들에게서 엘도라도의 전설이 콜롬비아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지금도 남아있는 스페인 바로크와 절충양식

수도 보고타는 해발 2,600m의 고원도시로서 항상 봄날씨 같다. 일찌기 A·D 310년부터 이곳에 자리잡고 살아온 무이스카족의 땅이다. 막달레나 강변의 가리마 문화지역과 자주충 하면서 금세공의 탁월한 기술을 익혀온 민족이다. 직기와 염색, 의술과 계량법, 도공술과 토목술도 뛰어났다고 한다. 「퀘사다」의 스페인 정복군에 의해 새로운 스페인으로 건설을 시작하여 「시몬 볼리바」의 독립 때까지(1538년 8월 6일~1819년 8월 7일) 3백년 가까운 동안 식민지 건축인 스페인 바로크와 절충양식들이 질서있게 도시를 형성하였고, 지금도 그대로 스페인처럼 남아 있다.

볼리바 광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사당·대통령 관저 등의 관공서와 주위의 주택가들이 식민시대의 박물관처럼 잘 보존되어 있다. 단 하나의 예외라고 생각되는 것은 광장 동쪽 3블록 건너에 있는 루이스 안젤 아랑고 도서관이다.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차례줄이 양쪽 도로를 따라 다음 길로

끄부라지면서 끝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도서관 열람실은 天光窓의 천정설계가 기능미를 잘 조화시키고 있으며 비디오·오디오室 열 갤러리는 인상파적 배색이 원색처럼 모더니스트 된 현대화들이 전시되고 있었다. 또 세계의 유명한 음악가들이 자주 연주회를 가졌다는 콘서트 룸을 중앙으로 모여지는 천정角材의 리드미컬한 흐름이 음향효과와 더불어 수준급임을 짐작케 한다.

광장 서쪽의 프리마다 사원은 국민의 99%가 가톨릭 교도라는 이 나라 신앙의 중심역할을 하는 바로크식 성당인데, 멕시코에서 보다는 장식이 없었지만 근엄하고 정연한 매칭의 파사드가 오히려 깔끔하게 보였다.

□ 새로운 면모의 보고타

보고타의 신시가지는 명랑하고 활기에 찬 시민들과 산뜻하고 깔끔한 현대건물들이 콜롬비아의 싱싱하면서 또 풋풋한 내일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았다. 바로 아베니다 19의 거리를 거닐면서 받은 인상이다. 유난히도 백인들이 많은 콜롬비아라서 그런지(백인 35%·메스티조 50%) 메스티조의 미소 띤 눈길과 어울려서 거리는 한결 밝아 보였다.

보도를 덮어버린 가로수는 석양빛에 더욱 반짝거렸고 그 위에 높이 솟은 어느 커튼 월에서는 석양을 토하고 있었다. 고급상가와 아파트들이 자연과 더불어 잘 어울려진 아름다운 거리의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았다.

프라베타리오가 있는 독립공원 주위의 마천루는 새로운 현대의 보고타를 더욱 실감케 한다. 오목한 곡선면에 철저하게 수직선을 강조한 테켄다마 보험사옥, 초고층의 지루함을 메시브한 수직선으로 갈라 놓은 세구로스 체닉스, 전면을 포물선으로 좁혀 올라간 대단한 매스의 산디아고 호텔 등이 보고타의 하늘을 갈라 놓고 있었다.

주택가 또한 그 나름대로 풍요로운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었다. 주택의 스페인식 스타일은 멕시코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담장없이 가로에 노출된 정원과 입구 정원수의 상징적인 강조는 미국의 헐리웃이나 호놀룰루의 가

할라]를 닮고 있었다. 치코의 영국대사관과 주위의 주택들도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그런데도 보고타의 현대건축은 솔직히 말해 기대 이상이었으나 대형보다는 오히려 소형건물에서 매력적인 포인트를 많이 찾아 볼 수가 있었다. 특히 건물의 모서리 부분 디테일에서 코너窓, 내민 발코니, 들어간 베란다 정원 등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으며 커튼 월을 즐겨 쓰는 만큼 노출 콘크리트 마감도 많이 눈에 띄었다. 또 하나 조심스러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벽의 흰색이 베이지색 같은 색으로 스페인 컬러가 바뀌어 가고 있었으며 고층의 외벽도 적벽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었다.

□ 신비스런 전설의 암염산과 지하사원

콜롬비아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 자랑하는 것이 있다. 시파쿠이라의 岩鹽山과 그 안의 지하사원이 바로 그것이다. 보고타市에서 50km의 거리를 달려 해발 2,650m에 있는 이 산에 도착했을 때는 햇볕이 따가운 오후였다. 유카리 나무들이 쪽쪽 뻗은 그 아래로 잔디풀이 길게 자라고 있었으며 소금산의 검은 흙 사이사이에 소금물이 흘러내린 흰 자국들이 있어 폐광과 같은 정경이 이색적이었다.

동굴 앞에서 뒤돌아 보면 나무숲 아래로 전개되는 마을의 평화로움이 오수를 즐기는 듯 했다. 저 마을과 이 岩鹽山이 어떻게 존재해 오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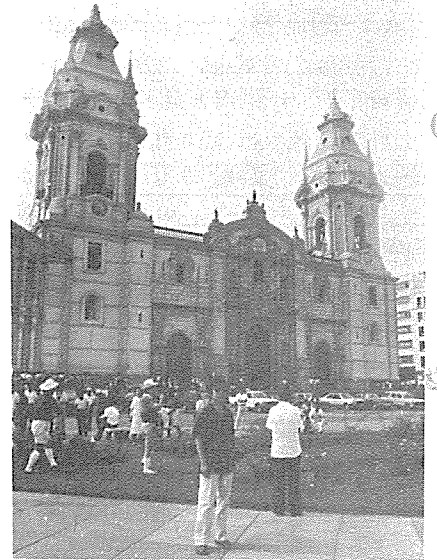


시파쿠이라 암염산의 지하성당

을까? 그들은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거대한 바다를 둘러싸고 있던 산들이 파열되면서 수원은 끊어지고 태양과 공기가 서서히 바다를 말리면서 물덩어리를 소금덩어리로 바꾸어 놓았다고. 그 말을 되새기면서 안으로 들어가 본다. 차가 오갈 수 있는 동굴길은 유카리 원목을 엮어 벽과 천정을 막았고 500미터쯤 걸으면 성당입구의 허름한 나무문이 나타나면서 몇단의 계단을 오른다. 브록 사이즈의 테라코타 바닥 위에 9m 정도의 사각기둥들이 20여 미터의 아치를 만들면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자체의 암염을 거칠게 깎아 만든 기둥들은 스틸로프로 보강되어 있었으나 행여나 하는 몹쓸 생각이 어느 순간 뇌리를 스치는 것은, 직업병인지는 몰라도 계단 앞에 가서야 잊어버릴 수 있었다.

길이 10m 정도의 암염을 베어다가 매끈한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계대와 손잡이는 정교한 하나의 조각이었으며 그 왼쪽 구아사의 까필라와 주랑 앞에 2층단으로 올려진 밝은 합창석, 그리고 오른쪽 계단을 올라야 하는 넓고 깊은 별당들이 함께 어울려 으스스한 조명 속에서 애조까지 느끼게 하는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계단 뒤에는 돔으로 된 원형의 기도실이 있는데, 가운데 서서 소원을 비는 멧평 남짓한 아담한 방으로서 벽을 소금돌로 조각조각 붙여 많은 공을 들인 정교함이 특히 돋보이는 곳이었다.

이곳을 나서면서 느낄 수 있었던 짙직한 냄새가 바로 소금가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여기저기 물이 흘러내린 흰 소금꽃이 동굴성당의 정취를 더하고 있었으며 입구쪽으로 물방울이 떨어지기도 해서 조금은 걱정스러웠다. 앞으로도 더함과 고침을 계속해야 되겠지만 19세기 초 독일인 토목기사 「오르쥬엘라」가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광부들이 손을 보태서 조각가 「모테노」와 건축가 「콘차」가 30여년 전에 이룩한 놀라운 구상은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一章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해 보았다. 400년 이상이나 파먹은 이 동굴광산에 8천명이 참례할 수 있는 1,700여명의 성당을 자연 岩鹽 그대로를 이용해 만든



프리마다사원

이 작품이야말로 시파쿠이라의 보석과도 같이 콜롬비아의 세기적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콜롬비아는 말없이 알차게 살아가는 나라 같다. 그러면서도 싱싱한 힘을 발산한다. 남자는 믿음직스럽고 여자는 모두들 미인이다. 6.25 때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 준 라틴 아메리카의 유일한 나라다. 시파쿠이라로 가는 길에 “대한민국이 콜롬비아 국민에게 드리는 塔”도 보았다. 6층 석탑 주위에 석등 몇개가 놓인 노터리의 그린 존이었다.

슬럼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풍요의 나라다. 세계 제일의 에머랄드와 커피, 남미 제일의 금과 백금 말고도 석유와 바나나의 수출국이다.

「볼리바 빌라」의 미혼의 아내 「마뉴엘 리타」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오히려 콜롬비아를 돋보이게 하고 있다. 주위 국가와도 가장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톨릭의 나라, 교육수준과 라틴의 집념이 그 누구보다도 강한 국민처럼 보인다. 미래를 향한 그들의 약속은 바로 엘도라도의 전설이 에머랄드의 푸른 불꽃으로 승화되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페루의 리마로 향해 발길을 옮긴다.

슬그머니 버린 휴지
슬그머니 버린 양심